

다도해 명품 섬마을 “물이 부럽지 않네”

섬 균형발전·관광활성화 여주시 다양한 사업 전개

여수시가 낙후된 섬지역 균형발전과 관광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

오는 2020년 여수와 고흥을 11개의 다리로 연결하는 연륙·연도교 건설공사가 차질없이 완공되면 다도해의 아름다운 섬을 더욱 쉽게 오갈 수 있게 돼 여수시의 섬관광 활성화 정책 등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여수시는 국·도비 등 관련 예산확보는 물론 천연의 비경(秘景)을 잘 활용한 섬특성화 사업과 관광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백야도

안도·낭도·하화도 등 섬가꾸기 통해 힐링명소로

천혜의 자연자원 활용 개발...관광객 발길 줄이어

◇안도 동고지 마을 등 개발=여수시 남면 안도 동고지 마을이 ‘국립공원 명품마을’로 조성되면서 명품 섬 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있다.

동고지 마을은 지난해 4월 국립공원 11번째 명품마을로 선정된 이후 여수시와 업무협약을 통해 본격적인 변화를 시작했다.

총 10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한 시는 낙후된 마을환경개선 사업과 자연자원 보호를 위한 노후 가옥 보수, 석면조사 및 안전처리, 생태습지 조성 등 다양한 분야의 개선사업을 했다.

또 어가(漁家) 민박 2동 신축과 민박 3동이 새롭게 리모델링 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시설도 갖췄다.

주민주도형 마을소득 기반 조성을 위해 해 주민 아카데미와 주민어울림 한마당 행사 개최, 동고지 명품마을 주식회사 법인 설립 등 마을 공동체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이 같은 여수시와 주민들의 노력 등이 더해져 명품 섬마을로 탈바꿈한 동고지 마을은 지난해 모 방송 프로그램 방영 이후 천혜의 자연경관과 아름다운 풍광을 만끽하기 위한 전국 단위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빠어난 해안 경관을 자랑하는 여수 화정면 낭도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개발된다.

전남도는 지난해 26일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을 통해 여수 낭도와 고흥

연흥도, 강진 가우도, 완도 소안도, 진도 관매도, 신안 반월·박지도 등 6개 섬을 최종 사업지로 선정했다.

시는 낭도에만 도·시비 등 총 8억원을 투입해 낭도·사도·추도 등 낭도 권역 3개 섬의 폐교를 리모델링한 ‘국제 워크 캠프’를 설립할 예정이다.

섬주민과 국내·외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하는 재생 추진위원회도 구성한다. 또 섬마을 학교 재생 프로그램 가동과 폐교와 섬마을의 새로운 탄생을 주제로 한 국제 워크캠프를 상설·운영할 방침이다.

또 주민 역량 강화 교육과 성공모델 현장 견학 등 섬 가꾸기 사업을 통해 ‘힐링의 명소’로 만들 계획이다.

여수항에서 여객선으로 1시간20분 정도 걸리는 낭도는 35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고즈넉한 섬마을이다.

공룡 발자국과 해수욕장으로 유명한 사도 등 낭도 권역 3개 섬은 아름다운 자연 자원을 보유한 천혜의 보고(寶庫)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된 특성화사업은 이뤄지지 못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명품마을 사업을 적극 육성해 낙후된 섬지역 균형발전과 아름다운 자연자원을 활용한 섬관광 활성화에 더욱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야생화의 천국 하화도 등도 주목= ‘꽃섬’으로 유명한를 타고 있는 화정면 하화도와 장구도를 연결하는 길이 100m, 폭 1.5m 규모의 ‘출렁다리’ 건설공사



하화도 꽃길



여자만 일몰



낭도 전경

인 화정면 개도에는 3.4km 구간에 전량 데크와 안전시설 등이 갖춰진다.

‘비렁길’로 유명한 금오도는 폐교를 활용한 야영장 등 생태 관광휴양지를 지난 2월 이미 조성해 관광객 맞이에 한창이다.

오는 5월 ‘벌자리 등대 테마공원’이 들어설 예정인 화정면 백야도는 인근 장동 해수욕장과 함께 아름다운 해안경관으로 전국 각지의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다.

돌산 송도지구 해안 휴양지 등 여수 섬지역 곳곳에 대한 도서종합개발 사업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도로와 선착장, 특산물판매장, 대합실, 복지회관 등 관광 편의시설과 주민 소득창출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으로 섬관광 활성화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9년 시작된 거문도 동도~서도 연도교 건설공사도 오는 9월 완공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동도~서도간 일주교통망 확보로 관광활성화와 농수산물 유통시간 단축 등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수시는 365개 섬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생일섬 지정사업의 일환으로 ‘365 아일랜드’ 사업을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추진 중이다.

총 70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365 아일랜드 센터와 365 생일섬 자원조사, 365 아일랜드&생일섬 브랜드 구축 등 섬관광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시는 365개의 섬 특성화 사업의 본격적인 육성으로 섬균형발전은 물론 체류형 관광객 유치와 통한 경제유발 효과 등 섬지역 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거북선축제의 백미인 ‘통제영 길놀이’

거북선축제 벌써부터 설렌다

내달 3~5일...‘통제영 길놀이’ 등 시민참여형 이벤트 다채

여수 대표축제인 ‘제49회 여수 진남 거북선축제’가 5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중앙동 이순신광장과 지역 일원에서 개최된다. 올해는 축제의 백미인 ‘통제영 길놀이’를 시민참여형으로, 용출다리와 소동줄놀이·매구 공연을 시민 대동놀이로 확대해 눈길을 끌고 있다.

13일 여수시와 여수 진남 거북선축제위원회에 따르면 올해로 축제 개최 49주년을 맞은 여수 진남 거북선축제는 ‘삼도수군 통제영의 숨결’이라는 주제로 30만 시민이 함께하는 시민 참여형 축제로 꾸며진다.

축제 첫날인 3일에는 ‘고유제’(告由祭)를 시작으로 이 총무공 동상 참배와 입방군 점교, 전라좌수영 축제, 통제영 길놀이 등 전장에 나서는 의식이 거행된다.

둘째 날인 4일에는 임란해전 유적지 순례, 용출다리기, 거문도 뱃노래 시연, 거북선 그리기·만들기, 오관오포지역 예술공연 등 승전보를 전하는 의식이 펼쳐진다.

셋째 날인 5일에는 거북선 출정 귀성대회와 전라좌수영 유적지 순례, 소년 이순신 대회, 청소년 춤과 노래 등 신명나는 한마당으로 꾸며진다.

체험행사로는 노젓고 노세, 명인·명사 쓰기, 신호연 만들기·날리기, 전라좌수영 순라군 체험 등이 진행돼 참가자들의 흥을 돋울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읍·면·동 별 대표음식을 선보이는 판매부스 운영과 지역 대표 특산물 홍보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소동 줄놀이’에 지역 초등학생들을 참여시키고, 중·고교학생들의 끼와 열정을 발산할 수 있는 ‘청소년 춤과 노래마당 행사’를 열어 축제 분위기를 고취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거북선 작품전시, 소년 이순신 대회, 거북선의 고향 여수 이야기 등 축제 주제인 거북선을 부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도 선보일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순신 장군의 얼이 살아있는 호국충절의 도시로서 30만 시민 화합과 단결을 위한 소동축제로 거듭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역사·문화·관광이 함께 살아 숨쉬는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전국 최고 축제로 발돋움해 가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관급공사 기동감찰 효과...여수시 비용 5억원 절감

여수시가 관급 공사현장에 대한 감도 높은 기동감찰을 실시해 5억원의 공사비를 절감하는 등 청렴도시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여수시는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동안 2000만원 이상의 관급 건설공사장 107곳에 대한 기동감찰을 실시, 7건의 부실시공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기동감찰로 설계·시공과정중 과다 계상된 6곳의 공사장에 공사비 5억원을 감액 조치했다. 또 나머지 1곳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재시공) 조치로 안전성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설계도면과 시방서, 관련 규

정 등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감리업체에 대한 경고처분과 해당업무 담당 시 공사감 독관에게도 엄중 주의조치를 내렸다.

시는 이번 성과에 따라 올해 관급발주 건설공사 700여건에 대해 기동감찰반을 편성, 연말까지 수시로 기동감찰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주철현 시장은 “기동감찰 강화 등 안전하고 청렴한 도시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으로 30만 시민이 행복한 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3년

광주일보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대(代)를 이어 읽는 신문

“매일”은 광주일보사가 발행하는 이념 문화예술매거진입니다.

지방지사 (061)			시내지국		
광신	0621944-0444	남원시	0631626-1601	광천	360-8375
군산시	0631487-2500	순창군	0631653-0444	남광	222-9440
장흥시	0631531-5544	서흥군	021313-5962	남부	652-0175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